

## 한국인의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차별의식 및 군복무에 대한 태도\*

심 미 혜†

ENDO YUMI

간사이대학

본 연구는 일반 성인 남녀 615명을 대상으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의식, 군복무에 대한 태도에 성별과 세대 및 군복무경험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고 군복무경험과 군복무에 대한 인식이 성차별의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한국사회의 성차별문제를 논의하였다. 먼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해당하는 20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각각 3개의 항목씩 선택하게 한 결과, 강한 책임감과 인생의 목표, 결단력과 성실함이 남성다움에 대한 남녀의 공통된 답변으로 선택되었다. 여성다움에 있어서는 따뜻함, 넓은 마음, 애교와 더불어 남성은 아름다운 용모, 헌신, 순종과 같은 항목들을, 여성은 인생의 목표를 여성다움의 중요한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요구되는 공통된 답변이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성차별의식은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세대 간 비교에 있어서는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차이가 없었지만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20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상관은 여성 집단과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 집단에서 두 변수 간 유의한 상관이 존재한 것에 반하여, 군대를 경험한 남성 집단에서는 두 변수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군복무에 대한 태도는 성별과 세대, 군복무경험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군복무에 대한 태도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여섯째, 적대적 성차별의식에는 성별과 연령이, 온정적 성차별의식에는 군복무에 대한 태도와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 유지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여성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여전히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성별과 세대를 아울러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성역할고정관념, 적대적성차별주의, 온정적성차별주의, 군복무경험, 군복무에 대한 태도

\* 본 논문은 2011년 일본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 심미혜, 간사이대학 심리학연구과

E-mail : forgrace99@hotmail.com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직장 내에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남성들의 가사역할 참여나 남아 선호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이며 정신적인 진보는 확실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여성 개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일과 자녀 양육에 힘들어하며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이 갈등의 기저에 여성은 부차적 노동자이며 집안 일이 여성의 본업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임무는 무엇보다 아이를 잘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며,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성이 취업을 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은 여성의 몫으로 여긴다.

표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향상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는 여전하다. 그러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의식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다. 여성에게 가사와 양육의 역할이 요구되듯 남성에게는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차별의식의 근간을 이루며,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차별은 구체화된다.

###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

성별에 따라 집단과 사회에서 기대되고 학습되거나 선택되는 행동이나 태도, 인간적 특성을 성역할이라 한다(江原, 1989). 인간적 특성이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성역할은 예를 들면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라는 행동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으로 일컬어지는 면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의 역할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조화된 신념으로(Lippa, 1990), 아주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사회 속에서 인정되어 남성은 중심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여성은 사소하며 보조적이며, 정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고 그렇게 학습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다움’ 때 가장 조화롭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회가 기대하는 성역할은 그들의 의식과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이나 능력, 관심 등 다른 많은 측면도 서로 다를 것이라 믿는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연령일수록, 직장여성보다는 가정주부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았으며(김은영, 1991),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남성은 직장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고재원, 남기덕, 2009). 또한 남성성이 강한 남성은 모든 영역에서 전통적인 태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이 높다고 보고되

었다(방희정, 1996).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차별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적이거나 편견적인 신념을 지지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다(Campbell, B., Schellenberg, E. G., & Senn, C. Y.; 1997). 성차별주의는 생물학적 우월함을 전제로, 남성을 여성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며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믿음을 지지하는 견해나 행동, 정책과 언어 등의 체계로 나타난다.<sup>1)</sup> 차별은 편견과 고정관념의 행동적인 측면이다.

#### 양가적성차별주의

기존의 성차별주의 이론들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중심으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Glick과 Fiske(1996)는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이론을 통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일방적인 형태가 아닌 다르지만 서로 연관된 두 가지의 형태인 적대적인 감정(Hostile Sexism)과 온정적인 감정(Benevolent Sexism)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여성을,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지만 동시에 존경받는 존재이며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남성을 지배하는 존재라는 양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평가한다는 것이다(Jost & Kay, 2005).

비전통적인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인 적대적 성차별주의(HS)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배적 남성주의(dominant paternalism)와 성별에 따른 차별은 당연한 것이며 남성이 사회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믿음을 반영하는 경쟁적성역할

주의(competition gender differentiation), 그리고 이성애에 대한 적대감을 의미하는 적대적 이성애(heterosexual hostility)의 세 가지 구성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Glick & Fiske, 1996, 1997; 심재웅, 2008). 적대적 성차별주의자는 책임감 강하고 이지적인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감정적이어서 직장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이 여론운동이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기존 남성의 지위와 권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실 저항적인 여성들을 비판한다(Glick & Fiske, 1996;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으로, 여성은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지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한 보호와 애정을 의미하는 보호적 남성주의(protective paternalism), 남자는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없으므로 여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보완적 성역할주의(complementary gender differentiation), 그리고 여성에 대한 심리적 애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친밀한 이성애(heterosexual intimacy)의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상반되는 세 개의 관점으로 설명된다(Glick & Fiske, 1996, 1997; 심재웅, 2008).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는 여성의 능력은 직장보다는 가정에 더 적합하다고 믿으며, 가정의 정서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또한 연약한 여성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남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표면적으로 여성을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여겨 여성을 존중하

1) 브리टे니커사전

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Glick & Fiske, 1996; 안상수 외, 2007).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성별 차이를 검토한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Glick & Fiske, 1996; 宇井、山本, 2001;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Glick, P., Fiske, S. T., Mladinic, A., Saiz, J. L., Abrams, D., Masser, B., Adetoun, B., Osagie, J. E., Akande, A., Alao, A., Brunner, A., Willemssen, T. M., Chipeta, K., Dardenne, B., Dijksterhuis, A., Wigboldus, D., Eckes, T., Expósito, F., Moya, M., Foddy, M., Kim, H-J., Lameiras, M., Sotelo, M. J., Mucchi-Faina, A., Romani, M., Sakalli, N., Udegbe, B., Yamamoto, M., Ferreira, M. C. & López, W. L., 2000)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득점이 모두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Swim(2000)이 지적한 대로 사회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낮은 위치에 있고 권력의 중심이 남성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양가적 성차별의식 연구의 또 다른 일관된 결과는 남성의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상관관계가 여성보다 낮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Glick & Fiske(1996)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은 여성과의 교류를 통해 여성에 대한 태도가 경험적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더 잘 분화되어 상관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Glick(2000) 등은 문화비교 연구를 통해 높은 성차별주의 문화를 가진 국가일수록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적대적 성차별의식 점수가 낮았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는 남성만큼 높고, 여성의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상관이 남성보다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성차별주의가 높은 문화일수

록 여성들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거부하지만,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남성의 인정을 얻기 위해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내면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Fischer(2006)도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으로부터 보호받고 존중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하였다.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영, 이선이, 최인철(2005)의 연구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직장여성과 같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여성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성역할에 충실한 가정주부와 같은 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宇井, 山本(2001)는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느 쪽이든 차별을 허용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高橋(2007)는 자신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적대적 성차별주의자는 성역할에 따르지 않는 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약화하고,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는 성역할에 따라 행동하는 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한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阪井(2007)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문조사에서 적대적인 성차별주의를 가진 남성일수록, 재력을 가진 외모가 아름답고 착한 여성을 기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밖에도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란 대학생들이 여성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았고(심미혜, 엔도유미, 2011a),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고 남성성

이 강할수록 성차별의식이 높게 나타났다(지미선, 2002). 반면에 가정 내에서 중요한 일을 어머니가 결정하는 학생들의 성평등의식 수준은 높았다(김은정, 2001).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을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을 성차별적이라 의식하지 못한다.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특성을 제한하고, 여성을 남성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역시 근본적으로 성차별주의적인 인식과 태도로 볼 수 있다(Glick & Fiske, 2001; 안상수 외, 2007).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며 여성의 연약함을 전제로 남성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유지하게 한다.

#### 한국 사회의 군사문화와 병역이데올로기

한국 사회의 성차별문제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하나로 군사문화의 영향이 지적되어 왔다(문승숙, 2007; 권혁범, 2003; 김명혜, 2003; 김현영, 2002; 김현욱, 2002; 오미영, 2002; 권인숙, 2000, 2001, 2005). 군사문화와 여성차별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받게 된 주제이며 이를 제기한 연구들은 근대 한국의 시대적 상황을 중요한 핵심 논리로 언급하고 있다.

문승숙(2007)은 해방과 전쟁, 분단과 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이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어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성은 의무병역과 산업 경계 건설에, 여성은 부차원적인 노동력으로 동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생계부양자와 주부로 노동을 분리한 근대적 성별위계가 확고히 되었다고 주장한다.

오미영(2002)도 군사주의, 국가안보,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 강화시키는 매개로 작용하였고, 이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분리와 위계적 이분화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인숙(2000, 2001) 또한 같은 맥락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은 국가주의적 논리를 강화시키며, 이는 국민정체성 형성에서의 성별화, 남성적 가부장적 지배력의 강화, 여성적 역할의 낮은 가치 평가 혹은 비가시화를 낳는다고 하였다. 나아가 징병제를 둘러싼 집단적 경험과 이데올로기적 문화 장치들이 한국의 군사화 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형성과 문화와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군사주의 문화가 남성성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면서 가부장제도와 성차별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존속시키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김현욱(2002)은 군사주의가 일상생활의 각 측면에서 개개인의 의식과 행위를 통한 재생산 과정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군사주의는 남성 중심적 질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남성 중심적 질서가 남성에게 가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경험시킴으로 남성화된 군사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문헌들은 역사적이며 사회 정치적 이유로 군사주의와 징병제가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유교적인 가부장이념과 결합되어 남성을 민족주체로 만들고, 남성 중심적 질서를 강화하며, 성별분업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게 하였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군사문화란 단순성, 획일성,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문화가 사회적 영역에 이식되

며 생성된 문화라고 정의된다(홍두승, 1996, 변화순, 1996, 권인숙, 2004). 군사주의는 군사적 가치를 고무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사고와 행동양식의 경향성,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일방적 명령과 무조건의 복종 관계, 가부장적 위계질서, 조직질서를 위한 폭력사용 등과 같은 군사적 방법이 사회조직이나 인간관계에서 하나의 모델로 적용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여성을 배개하지 않는 군사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Enloe Cynthia, 1993; 권오분, 2000; 김현영, 2002; 권인숙, 2005). 정희진(2013)은 성별은 군사주의를 작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기제이며 군사주의는 남성성, 여성성, 성별 이분법 같은 개념과 문화에 의존하는, 그 자체로 성별화된(gendered) 사회 현상이며 동시에 성별 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군사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적과 지키는 주체, 보호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가부장 사회의 ‘보호자 남성, 피보호자 여성’이라는 전형적인 성역할은 이 세 가지 요소의 모델이 된다. 군대의 존재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남성이 군대에 복무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남성다움을 검증할 수 없다고 느끼도록 해야 하고, 그들의 경험은 여성에 대한 지배와 보호, 여성들의 고마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사문화나 군사주의에 주목하며 그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이 오랫동안 국가안보가 경제개발이나 애국의 핵심논리로 기능하였으며(권인숙, 2004), 지금도 ‘분단’이라는 상황과 전쟁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철이 들고 진짜 사나이가 된다’고 하는 병역이데올로기가 통용되며 남성들의 군복무 경험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은 우리 사회의 군사주의가 작동하는 하나의 방식이다(권오분, 2000). 문제는 병역경험의 유무와 병역을 대하는 태도에 따른 성차별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편재하며, 병역이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어 남성과 여성의 책임과 역할을 구분하며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군가산점제 부활에 관한 여전한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불평등과 차별의 코드로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성인식의 문제를 다루며 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사회 가치관의 변화’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여성차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남성들의 군복무경험과 군복무에 대한 태도가 성차별의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군복무를 통해 기대되어지는 남성다움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한국인의 성차별의식과 성역할 고정관념, 군복무에 대한 태도에 성별과 연령 및 군복무경험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와 관련성을 검토하고 성별과 연령, 군복무경험과 군복무에 대한 태도가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성차별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1. 성별과 연령 간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2) 위민넷. 2005. “군사주의” [www.women.go.kr](http://www.women.go.kr)

대한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2. 성별과 연령 및 군복무경험의 유무에 따라 군복무에 대한 태도와 성차별의식에 차이가 있는가?
3. 성별과 연령 및 군복무경험의 유무에 따른 변수들의 상관은 어떠한가?
4. 성차별의식에 영향력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 방 법

#### 연구대상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에 걸쳐 경기도 B시와 충남 N시에 거주하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한국인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주로 지역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등에서의 행사를 활용하였고 종교단체의 세대별 모임에서도 협조를 구했다.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답변 후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총 615명(남성 296명, 여성 320명)이며 세대 및 군복무경험 유무와 관련된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 측정 도구

##### 성역할고정관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보편적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개인의 성역할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된 伊藤(1978)의 M-H-F척도를 바탕으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인간다움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20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남자다운 남자”란 어떤 사람이며, “여자다운 여자”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는지 세 가지씩 선택하게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伊藤(1978)의 척도에서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개인, 여성, 남성의 입장으로 각각 답하게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와 다수의 대상자를 고려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남자답고 여자다운 특성으로 선택되어진 문항들을 성별과 세대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군복무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논할 때 “남자다운 남자”는 “진짜 남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였다. 선정된 20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책임감이 강하다 2. 남을 배려할 줄 안다 3. 성실하다 4. 헌신적이다 5.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6. 리더쉽이 있다 7. 순종적이다 8. 정직하다 9. 의지가 강하다

표 1. 조사대상자 (N=615)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군경험無	군경험有
남성	296(48%)	74(25%)	81(27%)	73(25%)	67(23%)	56(19%)	239(81%)
여성	320(52%)	81(25%)	71(22%)	86(27%)	82(26%)		
전체	615(100%)	155(25%)	152(25%)	159(26%)	149(24%)		

※ 군경험無 남성 (20대=20명, 30대=15명, 40대=12명, 50대=9명)

10. 용모가 아름답다 11. 인내심이 강하다 12. 의리가 있다 13. 따뜻하다 14. 마음이 넓다 15. 믿음직스럽다 16. 애교가 많다 17. 인생의 목표가 있다 18. 결단력이 있다 19. 착하다 20. 홀로 설 수 있다.

### 성차별주의

성차별주의는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이 개발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2007)를 사용하였다. 적대적 성별의식과 온정적 성별의식이 각각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의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구성개념에 따른 요인으로 나누지 않고 적대적, 온정적 성별의식 두 개의 큰 구조로 분석하였다. 척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적대적 성별의식 .85, 온정적 성별의식 .78이다.

### 군복무에 대한 태도

군복무에 대한 태도는 선행연구(심미혜, 엔도유미, 2011b)에서 사용된 설문문항 중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병역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이라 생각하는 두 문항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철이 든다」,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진짜 남자가 된다」와 「군대에서의 경험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의 한 문항을 추가하여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책임감이나 인내심, 생활력, 적응력, 자신감, 다양한 기술 등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지만 (예, 군복무경험을 통해 인내심이 생긴다), 이 항목들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질'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들의 군복무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세 문항은 구조에 적합한 요인부하량(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진짜 남자가 된다 .845;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철이 든다 .735; 군대에서의 경험은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676)과 .79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계수)를 보였다.

## 결 과

###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집단 간 기준

먼저 남성은 “남자다운 남자”란 어떤 남자인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책임감(74.6%)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32.5%)와, 결단력(28.5%),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있고(26.1%), 리더쉽 있는(19%), 의리 있는 남자(18.6%)라고 대답했다. 여성은 책임감이 강하고(73.8%), 인생의 목표가 있는 남자(39.4%), 배려할 줄 알고(31.6%), 성실하고(29.4%), 믿음직한 남자(17.8%)를 선택하였다. 순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 “인생의 목표”가 모든 연령대의 남녀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남자다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남성다움에 대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결단력(28.5%)과 의리(18.6%)는 남성 집단에서, 성실함(29.4%)과 신뢰(17.8%)는 여성 집단이 선택한 남성다움이였다.

하지만 “여자다운 여자”의 선택 항목에서는 남성다움보다 20%를 넘는 항목이 많았고 남녀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그림 2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남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44.1%), 따뜻함(41.4%), 애교(32.9%), 아름다운 용모(29.5%), 헌신(27.8%), 순종(25.1%), 넓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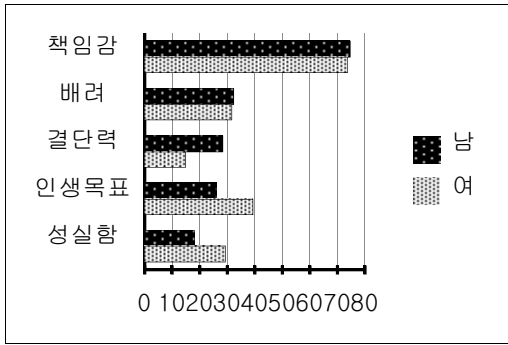


그림 1. 남성다움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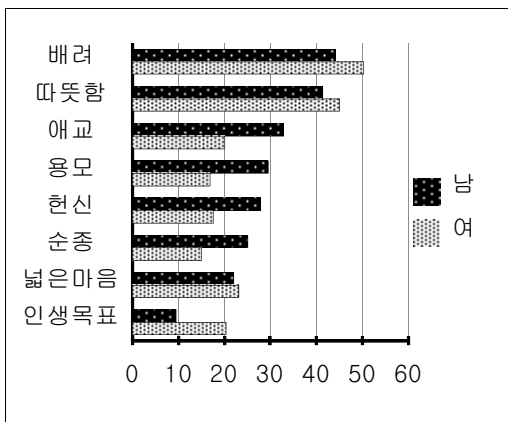


그림 2. 여성다움이란?

음(22%)을 선택하였고, 여성은 배려(50.3%)와 따뜻함(45%), 넓은 마음(23.1%), 인생의 목표(20.3%), 애교(20%)를 여성다움의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 넓은 마음, 애교는 모든 연령대의 남녀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여성다움이었지만 이와 더불어 남성은 아름다운 용모와, 헌신, 순종과 같은 항목들을, 여성은 인생의 목표를 여성다움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성차별의식과 군복무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먼저, 적대적 성차별의식(4점 likert 척도, 12항목)을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 성별과 연령별 모두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607)=169.73, p<0.01$ ;  $F(3,607)=6.72, p<0.01$ ).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의식 점수가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대가 낮아지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역시 연령별 사후검증에서 20대의 점수가 다른 연령대(30대, 40대, 50대)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여성보다 높다는 것에는 모든 연령대에 차이가 없었다. 적대적 성차별의식에 대한 성별과 연령별 차이는 표 2에 제

표 2. 적대적성차별의식의 성별 연령별 차이

성별	연령집단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주효과		상호작용
							성별	연령별	성별×연령
남	M	27.72	26.89	28.01	27.74	28.25	169.73***	6.72***	1.97
	SD	5.02	5.57	5.15	4.22	4.50			
여	M	22.83	21.01	22.18	23.78	24.17			
	SD	4.52	4.75	4.33	4.09	4.22			

\*\*\* $p<.001$

시하였다.

온정적 성차별의식(12항목)에서는 성별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607)=65.12, p<.001$ ).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온정적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적대적 성차별의식에서와 같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별 검토에서는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아

여성에 대한 온정적 인식이 모든 연령대에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 온정적 성차별의식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철이 든다」, 「군대 경험은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군대에 갔다 와야 진짜 남자가 된다」의 3문항으로 구성된 군복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표 3. 온정적성차별의식의 성별 연령별 차이

성별	연령집단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주효과		상호작용
							성별	연령별	성별×연령
남	M	<b>35.19</b>	35.97	34.33	35.27	35.25	<b>65.12***</b>	2.67	1.42
	SD	<b>4.51</b>	4.89	3.94	5.14	3.87			
여	M	<b>32.25</b>	31.80	31.32	32.51	33.22			
	SD	<b>4.70</b>	4.91	4.90	5.07	3.70			

\* $p<.05$  \*\*\* $p<.001$

표 4. 병역태도의 성별 연령별 차이

성별	연령집단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주효과		상호작용
							성별	연령별	성별×연령
남	M	<b>10.67</b>	10.86	10.17	10.78	10.94	.078	2.52	.861
	SD	2.62	2.84	2.48	2.44	2.66			
여	M	<b>10.64</b>	10.42	10.42	10.49	11.21			
	SD	2.29	2.45	2.09	2.33	2.20			

표 5. 군대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

	군대경험 有 (n=239)		군대경험 無 (n=59)		t검증
	M	SD	M	SD	
적대적성차별	27.68	4.89	27.88	5.58	n.s.
온정적성차별	35.22	4.47	35.04	4.71	
병역태도	10.77	2.52	10.23	2.99	

결과, 성별과 연령별 주효과와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군복무에 대한 태도에 있어 성별과 연령의 차이가 없고, 5점 척도의 전체 평균으로 볼 때 모든 집단이 남성의 군복무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복무태도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남성 집단으로만 구분하여 검토한 군복무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 그리고 군복무에 대한 태도에 군대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성차별의식과 군복무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상관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상관분석 결과, 남성 집단에서는 20대가 약한

정적상관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r=.248, p<.05$ ) 다른 연령대에서는 두 변수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남성 집단을 군복무경험의 유무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군대를 경험한 집단( $N=239$ )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지만( $r=.031, n.s.$ )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 집단( $N=56$ )에서는 약하지만 두 변수의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였다( $r=.251, p<.05$ ). 한편 여성 집단에서는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두 변수 간 상관이 유의하였다.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통제된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군복무태도와의 상관은 거의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았지만 50대 남성과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 집단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군복무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r=.237, p<.05; r=.331, p<.01$ ).

표 6.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상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군경험無	군경험有
남성	.078	.248*	.031	-.038	.080		
여성	.394***	.445***	.438***	.443***	.135		
남성						.251*	.031

\* $p<.05$  \*\*\* $p<.001$

표 7.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군복무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 (온정적 성차별의식 통제)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군경험無	군경험有
남성	.066	.024	.173	-.131	.237*		
여성	-.034	-.101	-.032	.035	-.081		
남성						.331*	-.012

\* $p<.05$  \*\* $p<.01$

표 8.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군복무에 대한 태도와와의 상관 (적대적 성차별의식 통제)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군경험無	군경험有
남성	.385***	.176	.295**	.499***	.632***		
여성	.281***	.324**	.202*	.228*	.333**		
남성						.232*	.415***

\* $p < .05$  \*\* $p < .01$  \*\*\* $p < .001$

즉, 50대 남성과 군복무경험이 없는 남성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강할수록 군복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지만, 50대를 제외한 군복무경험이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표 7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통제하고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군복무태도 간의 상관을 실시한 결과, 2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온정적 의식과 군복무태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특히 남성 집단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관도 높아졌다. 군복무경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성별, 연령, 군복무경험 및 군복무에 대한 태도가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성별과 연령, 군복무경험의 유무, 군복무에 대한 태도가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의식에 가장 설명력 있는 변수를 검토하기 위해 네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군복무경험은 더미변수로 처리 하였다.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대적 성차별의식에서는 성별( $\beta = .502, p < .001$ )과 연령( $\beta = .171, p < .001$ )이, 온정적 성차별의식에는 성별( $\beta = .319, p < .001$ )과 병역태도( $\beta = .321, p < .0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변수들은 적대적 성차

표 9. 성별, 연령, 군복무경험의 유무, 군복무에 대한 태도가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	$\beta$	t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적대적의식	성별	5.374	.681	<b>.502***</b>	7.889	.240***	.235
	연령	.753	.171	<b>.157***</b>	4.412		
	군복무유무	-.527	.698	-.048	-.754		
	군복무태도	.149	.077	.068	1.920		
온정적의식	성별	3.089	.632	<b>.319***</b>	4.885	.197***	.192
	연령	.128	.158	.029	.807		
	군복무유무	-.200	.648	-.020	-.309		
	군복무태도	.634	.072	<b>.321***</b>	8.820		

\*\*\* $p < .001$

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각각 24%와 20%로 설명하였다. 성별은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에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연령은 적대적 성차별의식에, 군복무에 대한 태도는 온정적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남성들의 군복무경험과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철이 들고 진짜 사나이가 된다”라는 군복무에 대한 인식이 성차별의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군복무를 통해 기대되어지는 남성다움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가적 성차별의식 그리고 군복무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성별과 세대 및 군복무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와 관련성,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먼저, ‘진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보편적 기준과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집단별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문항에서는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 “인생의 목표”가 모든 연령대의 남녀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남성다움의 항목으로 선택되었다. 그 밖에 결단력과 의리는 남성 집단에서, 성실함과 신뢰는 여성 집단이 선택한 남성다움이었다. 그러나 여성다움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드러났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 넓은 마음, 애교는 모든 연령대의 남녀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여성다움이었지만 이와 더불어 남성은 아름다운 용모와, 헌신, 순종과 같은 항목들을, 여성은 인생의 목표를 여성다움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남성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책임감 강한” 리더로서의 자질이, 여성에게는 “따뜻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순종적이고 애교 많은” 리더의 정서적 조력자로서의 자질이 요구되었다.

여성다움에 대한 남녀의 시각 차이와 남녀의 ‘다움’에 대한 상반된 기준은 우리 사회의 성역할 갈등의 일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과 성차별의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는 근거가 된다.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태도가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적대적 성차별의식이라는 양가적 측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성차별의식의 집단 간 차이에서는 남성의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여성보다 높았고, 20대 남녀의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지만, 온정적 성차별의식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적대적 의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비해, 온정적 의식은 모든 연령대에서 고착되어 있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온정적 성차별에 내포되어 있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성차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상관은 여성 집단에서 두 변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에 반하여, 남성 집단에서는 20대가 약한 정적상관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성들의 성차별의식이 적대적, 온정적인 형태로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Glick 등

(1996)은, 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며 여성에 대한 태도가 경험적으로 구체화되어 상관이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20대 남성만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이들의 주장대로, 이성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어 여성에 대한 태도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Glick 등(2000)은 19개국의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 둘의 상관이 낮은 경향을 보이며, 여성의 상관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 한국남성은 .16, 한국여성은 .32의 상관을 보였다. 이에 대해 Glick 등(2000)은, 남성이 동기적 지향에 따라 여성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이 되거나 온정적인 쪽으로 분화되어지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그 사회나 문화에서 규정하는 여성에 대한 신념들에 순응하여 적대적인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에 모두 동조하거나 이를 거부하여 모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안상수 등, 2007). 여기에 시스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Jost, Blount et al., 2003; Kay et al., 2008)을 적용해 생각해 본다면, 남성의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여성들은 남성의 체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강자인 남성들의 논리를 수용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시스템 정당화 이론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현행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긍정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고, 현행 사회 시스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약자일수록 불이익에 대한 고통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배체제를 인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성차별의식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특점이 모두 높고 남성의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상관관계가 여성보다 낮은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군복무경험의 유무에 따른 두 변수의 상관결과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드러났다. 두 집단의 성차별 특점에 차이가 없었음에도, 군대를 경험한 남성 집단의 적대적, 온정적 의식이 분화된 것과는 달리,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 집단에서는 두 의식이 분화되지 않고, 약하지만 여성 집단과 같은 정적 상관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결과는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 집단에 20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시스템 정당화 이론을 조심스럽게 비추어 본다면, 이들 또한 군복무를 수행한 대다수의 남성에 비해 여성과 같은 약자의 집단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표본수가 군대를 경험한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군복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군복무경험의 유무와 관련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성 집단과 군대를 경험한 집단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의식에만 군복무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 집단에서는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모두 군복무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적대적이면서 온정적인 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어, 적대적 의식 또한 군복무태도와 정적인 상관으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참고로 남자 대학생을 미필과 군필 집단으로 나누어 검토한 연구(심미혜 외, 2012)에서 미필 대학생들의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군필 대학생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고, 군복무 경험을 통해 강화된 남성성이 여성에 대한 적대적 의식을 완화시키고 온정적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증가에 따른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이 결과를 모든 남성에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남자 대학생들에게 군복무경험의 유무가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확연히 달랐다.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결과는, 성별과 연령, 군복무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타난 군복무에 대한 태도와 온정적 성차별의식과의 유의한 상관이다. 이것은 남성이 군복무 경험을 통해 철이 들고, 진짜 남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높고, 군복무가 남성들의 사회생활에 유익한 경험이라 여길수록 여성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다는 것이며, 나아가 성차별의식이 군복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군복무에 대한 태도가 온정적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회귀분석 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본 조사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남성들의 군복무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병역이데올로기의 속성과 매우 밀접하여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온정적 성차별을 차별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책임감 강한 “진짜남자”의 기대 속에는 남녀의 역할과 지위의 차이를 지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이러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한다.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군복무경험과 군복무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

지하게 하며 나아가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성역할고정관념 측정에 다중응답법을 사용하여 변수들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지 못했고 성별과 연령, 군복무 경험의 유무에 한정하여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또한 군대경험의 유무에 따른 집단 표본수의 차이가 컸으며, 군복무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이고 온건한 측면으로만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문항선정의 문제가 온정적 성차별주의와만 상관이 나타난 결과로 귀결되었을 수 있으므로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적대적 성차별의식과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인숙 (2000). 우리들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의 군사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년 봄강좌.
- 권인숙 (2001). 군사주의와 여성-징병제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인권학술대회발표논문.
- 권인숙 (2004). 군사주의 문화의 성별화 된 실제와 과제. 여성가족생활연구, 8, 17-35.
- 권인숙 (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서울: 청년사.
- 권혁범 (2003). 예비역남성, 그들은 누구인가? - 한국 군필 남자들의 피해의식의 근원을 찾아서 - 계간 여성잡지 <이프> 특집 ‘여자 군대를 말한다’.
- 권혁범 (2006). 여성주의, 남자를 살리다.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고재원, 남기덕 (2009). 시간기반적 직장가정 갈등경험에 미치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2(3): 373-397.
- 김신현 (2010). 군입대 전후의 성의식 및 태도.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석사논문.
- 김양희, 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3-44.
- 김은영 (1991). 한국인의 성고정관념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은정 (2001). 대학생의 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 김현영 (2002). 병역 의무와 근대적 국민 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현옥 (2002). 일상생활 속의 군사주의 재생산과 성별 경험: 의식, 경험, 행위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8(1), 71-107.
-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희, 최인철 (2005).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117-133.
- 문승숙 지음, 이현정 옮김 (2007).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박진환 (2004). 담론의 활용을 통한 대학 내 군대 문화의 재생산.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방희정 (1996). 성역할고정관념: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실제, 여성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심미혜, 엔도유미 (2011a). 가부장주의, 남성성, 병역태도가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 - 미필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 한일차세대 학술포럼 제8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심미혜, 엔도유미 (2011b). 한국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차별의식 및 군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1), 1-17.
- 심미혜, 엔도유미 (2012). 한국남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차별의식 - 군미필자와 군필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 심재용 (2008). 포르노그래피 이용이 대학생들의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6), 167-188.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척도(K-ASI)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 (2008). 성평등의식의 과거와 현주소. 젠더리뷰 2008, 여름, 61-71.
- 오미영 (2002). 군사주의와 젠더화된 위계질서. 여성연구논집, 13, 91-111.
- 유혜정 (2006). 남성 섹슈얼리티의 사회화 기제로서 군대 성문화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논문.
- 정희진 (2013).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이 성정치학, 제3부 군사주의와 남성성. 교양인출판사.
- 조성숙 (1996). 군대와 남성.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220-225.
- 조용범 (2005) 병역과 한국남자 심리학보고서. 한겨레: 탐사기획, 2005년 11월 1일.
- 지미선 (2002). 초등학생의 성차별의식과 성역할과의 상관성. 순천대학교 석사논문.
- 홍두승 (1996). 한국군대의 사회학. 나남출판사.
- Campbell, B., Schellenberg, E. G., & Senn, C. Y.



- (1997). Evaluating measures of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pp. 89-102.
- Enloe, Cynthia H. (1993). *The Morning After: Sexual Politics at the End of the Cold W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ischer, A. R. (2006). Women's benevolent sexism as reaction to hostilit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410-416.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pp.491-512.
- Glick, P., & Fiske, S. T. (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Measuring Ambivalent Sexist Attitudes Toward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99-135
- Glick, P., Fiske, S. T., Mladinic, A., Saiz, J. L., Abrams, D., Masser, B., Adetoun, B., Osagie, J. E., Akande, A., Alao, A., Brunner, A., Willemsen, T. M., Chipeta, K., Dardenne, B., Dijksterhuis, A., Wigboldus, D., Eckes, T., Expósito, F., Moya, M., Foddy, M., Kim, H-J., Lameiras, M., Sotelo, M. J., Mucchi-Faina, A., Romani, M., Sakalli, N., Udegbe, B., Yamamoto, M., Ferreira, M. C. & López, W. L. (2000). Beyond prejudice as simple antipathy: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pp.763-775.
- Glick, P., & Fiske, S. T. (2001). Benevolent Sex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pp.115-188.
- Glick, P., Lameiras, M., Fiske, S. T., Eckes, T., Masser, B., Volpato, C., Manganelli, A. M., Pek, J., Huang, L., Sakalli-Ugurlu, N., Castro, Y. R., D'Avila Pereira, M. L., Willemsen, T. M., Brunner, A., Six-Materna, I., & Wells, R. (2004). Bad but bold: Ambivalent attitudes toward men predict gender inequality in 16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pp.713-728.
- Goodwin, S. A., & Fiske, S. T. (2001). Power and gender: The double-edged sword of ambivalence, In R. K. Unger (ED). *Handbook of psychology of woman and gender*. New York: Jone Wiley & Sons, pp.358-366.
- 宇井美代子 (譯) (2004). 権力とジェンダ-: アンビバレンスという兩刃の剣, 青野篤子編 (2009).ジェンダ-の心理學ハンドブック, 北大路書房.
- Jost, J. T., Blount, S., Pfeffer, J., & Hunyady, G. (2003). Fair market ideology: Its cognitive-motivational underpinning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5, pp.53-91.
- Jost, J. T., & Kay, A. C. (2005). Exposure to benevolent sexism and complementary gender stereotypes: Consequences for specific and diffuse forms of system jus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pp. 498-509.
- Kay, A. C., Gaucher, D., Napier, J. L., & Laurin, K. (2008). God and the government: Testing a compensatory control mechanisms for the support of external syst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pp.18-35.
- Lippa, R. A. (1990).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Belmont Wadsworth.
- Swim, J. K. (2000). Sexism. In A. E. Kazdin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Vol. 7. Oxford

- University Press, pp.232-236.
- Viki, G. T., Abrahams, D., & Hutchison, P. (2003). The "true" romantic: Benovolent sexism and paternalistic chivalry. *Sex Roles*, 49, 533-537.
- 青野篤子編 (2009). *ジェンダ-の心理學ハンドブック*, 第2章. 性差別主義. ナカニシヤ出版.
- 池上 知子 (2013). 格差と序列の心理學, 第1章. 格差と序列を生み出す心理. ミネルヴァ書房
- 伊藤 裕子 (1978). 青年期における性役割観の形., *教育心理學研究*, 26, pp.1-11.
- 宇井, 山本 (2001). *Ambivalent Sexism Inventory (ASI)*日本版の信頼性と妥当性の検討. *日本社會心理學會第42回大回論文集*, pp.300-301.
- 江原由美子 (1989). *ジェンダ-の社會學—女性たち・男性たちの世界*, 新曜社.
- 阪井俊文 (2007). セクシズムと戀愛特性の關連性の檢., *心理學研究*, 78(4), pp.390-397.
- 鈴木淳子, 柏木恵子 (2006). *ジェンダ-の心理學—心と行動への新しい視座*, 第2章ジェンダ-役割の態度変化と文化社會變動.
- 高橋久美子 (2002). 自己への脅威が女性に對する偏見に及ぼす効果—兩面價值的性差別理論からの検討—. *社會心理學研究*, 23, pp. 119-129.
- 山本 眞理子 (2001). *心理測定尺度集 I*, 人間の内面を探る“自己・個人内過程”. サイエンス社.
- 1차원고집수 : 2013. 4. 29.  
심사통과집수 : 2013. 7. 31.  
최종원고집수 : 2013. 9. 22.

## **Stereotypes toward Gender Roles, Sexism and Attitudes toward Military Service among Koreans**

**Shim, Mi-Hye**

Dep't of Psychology,  
Kansai University

**Endo, Yumi**

Professor, Dep't of Sociology,  
Kansa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surveyed 615 adult males and females to find out differences by gender and generation in stereotypes toward gender roles in term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and sexism against women and to discuss any relevance with the ideology of military service,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a background for sexism. First, asked to choose three items from each of 20 questions about masculinity and femininity, both male and female respondents selected responsibility, goals in life, determination and sincerity as common aspects of masculinity. In terms of femininity, male respondents chose warmth, generosity and charm as well as beautiful appearance, devotion and docility, whereas female respondents selected goals in life. Consideration for others was found common to femininity and masculinity. Second, in view of sexism by gender, male respondents proved more discriminative in terms of both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in benevolent sexism. By contrast, only those who were in their 20s had lower hostile sexism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Third, attitudes toward military service, used to measure any influence of the ideology of military service did not differ by gender and generation. Fourth, benevolent sexism and attitudes toward military service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in all age groups and increased in proportion to ag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distinct gender-based perspectives still exist about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our society, that hostile sexism against women gradually disappears in younger generations and that the ideology of military service is deeply associated with sexism across gender and generation.

*Key words* : *Stereotypes toward gender roles, Hostile sexism, Benevolent sexism, Military experience, Attitudes toward Military service*

부 록

남성이 선택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단위 : %)

남자(n=295)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인수(%)	74(25%)	81(27%)	73(25%)	67(23%)	
남성 다 움	1. 책임감이 강하다	220(74.6)	49(66.2)	59(72.8)	55(75.3)	57(85.1)
	2. 배려할 줄 안다	96(32.5)	22(29.7)	22(27.2)	31(42.5)	21(31.3)
	3. 성실하다	54(18.3)	8(10.8)	13(19.8)	13(17.8)	17(25.4)
	4. 현신적이다	21(7.1)	4(5.4)	3(3.7)	7(9.6)	7(10.4)
	5. 신체 건강하다	24(8.1)	7(9.5)	6(7.4)	6(8.2)	5(7.5)
	6. 리더쉽이 있다	56(19)	16(21.6)	17(21)	12(16.4)	11(16.4)
	7. 순종적이다	5(1.7)	1(1.4)	0(0)	0(0)	4(6)
	8. 정직하다	17(5.8)	5(6.8)	6(7.4)	3(4.1)	3(4.5)
	9. 의지가 강하다	45(15.3)	12(16.2)	9(11.1)	14(19.2)	10(14.9)
	10. 용모가 아름답다	0(0)	0(0)	0(0)	0(0)	0(0)
	11. 인내심이 강하다	26(8.8)	6(8.1)	4(4.9)	9(12.3)	7(10.4)
	12. 의리가 있다	55(18.6)	16(21.6)	18(22.2)	16(21.9)	5(7.5)
	13. 따뜻하다	7(2.4)	4(5.4)	2(2.5)	1(1.4)	0(0)
	14. 마음이 넓다	38(12.9)	8(10.8)	14(17.3)	9(12.3)	7(10.4)
	15. 믿음직스럽다	38(12.9)	9(12.2)	14(17.3)	12(16.4)	3(4.5)
	16. 애교가 많다	0(0)	0(0)	0(0)	0(0)	0(0)
	17. 인생목표가 있다	77(26.1)	27(36.5)	22(27.2)	9(12.3)	19(28.4)
	18. 결단력이 있다	84(28.5)	20(27)	25(30.9)	20(27.4)	19(28.4)
	19. 착하다	2(0.7)	1(1.4)	1(1.2)	0(0)	0(0)
	20. 홀로 설 수 있다	14(4.7)	5(6.8)	4(4.9)	1(1.4)	4(6)
여 성 다 움	1. 책임감이 강하다	15(5.1)	1(1.4)	3(3.7)	5(6.8)	6(9)
	2. 배려할 줄 안다	130(44.1)	32(43.2)	32(39.5)	37(50.7)	29(43.3)
	3. 성실하다	40(13.6)	10(13.5)	11(13.6)	10(13.7)	9(13.4)
	4. 현신적이다	82(27.8)	16(21.6)	28(34.6)	16(21.9)	22(32.8)
	5. 신체 건강하다	9(3.1)	4(5.4)	2(2.5)	1(1.4)	2(3)
	6. 리더쉽이 있다	5(1.7)	0(0)	0(0)	2(2.7)	3(4.5)
	7. 순종적이다	74(25.1)	18(24.3)	16(19.8)	22(30.1)	18(26.9)
	8. 정직하다	11(3.7)	4(5.4)	3(3.7)	2(2.7)	2(3)
	9. 의지가 강하다	8(2.7)	2(2.7)	2(2.5)	1(1.4)	3(4.5)
	10. 용모가 아름답다	87(29.5)	25(33.8)	28(34.6)	18(24.7)	16(23.9)
	11. 인내심이 강하다	17(5.8)	1(1.4)	3(3.7)	7(9.6)	6(9)
	12. 의리가 있다	3(1)	0(0)	1(1.2)	0(0)	2(3)
	13. 따뜻하다	122(41.4)	32(43.2)	41(50.6)	23(31.5)	26(38.8)
	14. 마음이 넓다	65(22)	20(27)	12(14.8)	18(24.7)	15(22.4)
	15. 믿음직스럽다	5(1.7)	1(1.4)	2(2.5)	2(2.7)	0(0)
	16. 애교가 많다	97(32.9)	23(31.1)	32(39.5)	25(34.2)	17(25.4)
	17. 인생목표가 있다	28(9.5)	10(13.5)	6(7.4)	5(6.8)	7(10.4)
	18. 결단력이 있다	3(1)	0(0)	2(2.5)	1(1.4)	0(0)
	19. 착하다	52(17.6)	16(21.6)	12(14.8)	16(21.9)	8(11.9)
	20. 홀로 설 수 있다	13(4.4)	3(4.1)	3(3.7)	4(5.5)	3(4.5)

여성이 선택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단위 : %)

	여자(n=320)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인수(%)	81(25%)	71(22%)	86(27%)	82(26%)
남 성 다 움	1. 책임감이 강하다	236(73.8)	46(56.8)	59(83.1)	65(75.6)	66(80.5)
	2. 배려할 줄 안다	101(31.6)	23(28.4)	16(22.5)	29(33.7)	33(40.2)
	3. 성실하다	94(29.4)	13(16)	18(25.4)	30(34.9)	33(40.2)
	4. 헌신적이다	13(4.1)	3(3.7)	2(2.8)	6(7)	2(2.4)
	5. 신체 건강하다	44(13.8)	15(18.5)	6(8.5)	10(11.6)	13(15.9)
	6. 리더쉽이 있다	54(16.9)	11(13.6)	13(18.3)	17(19.8)	13(15.9)
	7. 순종적이다	2(0.6)	0(0)	0(0)	0(0)	2(2.4)
	8. 정직하다	24(7.5)	7(8.6)	4(5.6)	6(7)	7(8.5)
	9. 의지가 강하다	30(9.4)	6(7.4)	3(4.2)	11(12.8)	10(12.2)
	10. 용모가 아름답다	2(0.6)	1(1.2)	0(0)	0(0)	1(1.2)
	11. 인내심이 강하다	25(7.8)	11(13.6)	4(5.6)	6(7)	4(4.9)
	12. 의리가 있다	28(8.8)	10(12.3)	7(9.9)	8(9.3)	3(3.7)
	13. 따뜻하다	19(5.9)	6(7.4)	5(7)	4(4.7)	4(4.9)
	14. 마음이 넓다	45(14.1)	15(18.5)	12(16.9)	12(14)	6(7.3)
	15. 믿음직스럽다	57(17.8)	22(27.2)	16(22.5)	11(12.8)	8(9.8)
	16. 애교가 많다	0(0)	0(0)	0(0)	0(0)	0(0)
	17. 인생목표가 있다	126(39.4)	34(42)	34(47.9)	27(31.4)	31(37.8)
	18. 결단력이 있다	48(15)	14(17.3)	12(16.9)	14(16.3)	8(9.8)
	19. 착하다	0(0)	0(0)	0(0)	0(0)	0(0)
	20. 홀로 설 수 있다	11(3.4)	6(7.4)	2(2.8)	2(2.3)	1(1.2)
여 성 다 움	1. 책임감이 강하다	43(13.4)	5(6.2)	13(18.3)	11(12.8)	14(17.1)
	2. 배려할 줄 안다	161(50.3)	44(54.3)	38(53.5)	43(50)	36(43.9)
	3. 성실하다	48(15)	9(11.1)	7(9.9)	13(15.1)	19(23.2)
	4. 헌신적이다	56(17.5)	15(18.5)	10(14.1)	11(12.8)	20(24.4)
	5. 신체 건강하다	27(8.4)	4(4.9)	5(7)	5(5.8)	13(15.9)
	6. 리더쉽이 있다	8(2.5)	1(1.2)	1(1.4)	5(5.8)	1(1.2)
	7. 순종적이다	48(15)	9(11.1)	9(12.7)	11(12.8)	19(23.2)
	8. 정직하다	31(9.7)	5(6.2)	5(7)	11(12.8)	10(12.2)
	9. 의지가 강하다	21(6.6)	6(7.4)	6(8.5)	5(5.8)	4(4.9)
	10. 용모가 아름답다	54(16.9)	16(19.8)	16(22.5)	12(14)	10(12.2)
	11. 인내심이 강하다	50(15.6)	9(11.1)	12(16.9)	15(17.4)	14(17.1)
	12. 의리가 있다	3(0.9)	2(2.5)	0(0)	0(0)	1(1.2)
	13. 따뜻하다	144(45)	42(51.9)	34(47.9)	42(48.8)	26(31.7)
	14. 마음이 넓다	74(23.1)	19(23.5)	18(25.4)	24(27.9)	13(15.9)
	15. 믿음직스럽다	4(1.3)	0(0)	0(0)	3(3.5)	1(1.2)
	16. 애교가 많다	65(20.3)	17(21)	14(19.7)	14(16.3)	20(24.4)
	17. 인생목표가 있다	65(20.3)	20(24.7)	15(21.1)	19(22.1)	11(13.4)
	18. 결단력이 있다	13(4.1)	3(3.7)	4(5.6)	5(5.8)	1(1.2)
	19. 착하다	24(7.5)	14(17.3)	2(2.8)	6(7)	2(2.4)
	20. 홀로 설 수 있다	21(6.6)	3(3.7)	4(5.6)	3(3.5)	11(13.4)